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Verbal Control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대학원생 송 해 영

부교수 엄정애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Hye Young, Song

Associate Professor : Jung Ae, Ohm

▶ 목 차 ▶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IV.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verbal controls, and his children's social competency depending on gender. Subjects were 156 five-year-old children and their fathers in 4 private kindergarten in Gyeonggi province.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Cronbach's alpha,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children's gender in terms of children's external behavioral problems in social competency. 2)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athers'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male children's social competency. 3)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athers' imperative control under verbal controls and their male children's social competency.

주제어(Key Words):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 언어통제유형(verbal controls),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y)

I. 서 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적 맥락 속에 놓이게 되며 외부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 발달해 나간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이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사회적 능력이며, 이는 유아기부터 길러지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Ford(1982)는 사회적 능력이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어지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능력은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유아의 정서적 성숙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정의되어지고 있다(La Freniere & Dumas, 1995). Denham, Blair, DeMulder, Levita, Sawyer, Auerbach-Major, Queenan(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Jewsuwan, Luster와 Kostelink(1993)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통하여 유치원 환경 적응 및 또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사회적 능력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Hartup, 1991; La Freniere, Masatak, Butovskaya, Chen, Dessen, Atwanger, Schreiner, Montirocco, Frigerio, 2002), 생의 초기 사회적 관계 형성은 일생을 거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Parker & Asher, 1987). 이러한 측면에서 La Freniere와 Dumas(1995)는 사회적 능력이 긍정적 차원의 개념이지만, 공격적 행동 및 사회적 위축 행동 등의 외적 내적 행동 문제를 친사회적 행동과 함께 살펴본다면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유아의 특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의 적응력, 융통성,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하고 인내, 차분함, 친사회성, 협력성, 쾌활, 안정감, 통합, 자율성 등의 긍정적 정서를 포함한다. 반면 외적 행동문제는 분노, 공격성, 자기중심성, 적대감 등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며 내적 행동문제는 위축, 불안, 고립, 의존성 등의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에서 행동적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하는데, 유아에게 최초의 사회화 인자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기본적인 인격구조 및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며 지속적인 성장발달을 한다는 것이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을 통

해서 증명되고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유아의 개인 변인과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유아의 개인 변인으로서 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아는 여아보다 신체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여아는 남아보다 언어적 행동을 더 많이 하며(McDonald & Parke, 1984),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Cohn, 1990; Ford, 1982; La Freniere, Masatak, Butovskaya, Chen, Dessen, Atwanger, Schreiner, Montirocco, Frigerio, 2002). 한편,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인식, 애착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강기숙, 이경님, 2001; 노명희, 1995; 우수경, 2005; 유우영, 1998; 최정미, 2002;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발달 및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 중 정서적 측면이 중요시 되면서(Isley, O'Neil & Parke, 1996; MacDonald & Parke, 1984)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관련된 연구들(김문신, 2003; 박순천, 2006; 윤영란, 2005; 이양순, 2005; 차윤희, 2004)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정서표현성은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의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패턴이나 스타일로 정의되는데(Halberstadt, Cassidy, Stifer, Parke & Fox, 1995),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높은 온정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는 사회적 능력과 이해력이 높고 적대감이나 외현적인 문제행동들은 적게 나타난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Rothbaum & Weisz, 1994)고 하였으며, Buck(1984)은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하고 유아의 정서표현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유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감정이입하기보다는 내면화된 불안이나 고통 반응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표현을 가능한 적게 하고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감정이입을 잘 하게(Eisenberg & McNally, 1993)되고, 사회적 적응력 역시 높아지게 된다.

정서표현성과 더불어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부모 요인은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다. 언어통제유형이란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양식으로, Bernstein(1977)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통제유형은 자녀의 사회적 지각과 범주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언어적 통제측면에 반영된다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측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명령적이고 지워

지향적인 언어통제유형은 어머니가 그 행동을 잘못이라고 단정을 내리므로 유아는 자신의 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사고 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므로 자신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되어 포괄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이경희, 1993). 김정선(2003)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지위 지향적 통제와 인성 지향적 통제 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오늘날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출산율 저하와 핵가족화 등 가족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요구되며 자녀양육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Parke 와 Tinsley(1987)는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이론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생물학적 이유보다는 '양친의 존재'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력, 자녀 양육 및 참여에 있어서 부모 공동의 역할 및 책임이 가족 체계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송수원, 2002, pp.11-12 재인용).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 양육 측면에서 유아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함은 물론 어머니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충족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유아에게 좋은 모성환경을 조성하도록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와 다른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유아가 성장 발달함에 따라 유아의 지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자극한다.

한편, Bigner(1979)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유아의 성에 따라서도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남아와 여아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며, 남아에게는 남성성을, 여아에게는 여성성을 강조하고,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자주 대화를 시도하며 자주 웃음을 보이고 육체적 활동을 격려한다고 한다. 이같이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주며, 사회화를 이끌어 줌으로서 남녀 유아의 사회화에 또래 친구나 어머니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유아의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부모-유아 간 상호작용 또는 부모의 양육행동 표출 과정에서 정서와 언어적 요소가 주된 상호작용 매개체(오영희, 우수경, 김화자, 2006)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우수경, 정영숙, 2003)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또한 도혜숙(1997)의 연구가 유아를 대상으

로 했을 뿐,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이경희,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추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아버지-자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유아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유치원 4곳에 재원중인 만 4세, 만 5세 원아 156명과 그들의 아버지이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여아가 86명(55.1%), 남아 70명(44.9%) 이었으며, 연령은 만 4세와 만 5세가 각각 78명씩 50.0%로 같은 비율이었다. 연구대상 아버지의 연령층은 35-40세 미만이 89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세 이상이 38명(24.4%), 35세 미만이 29명(18.6%)으로 각각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73명(46.8%), 고졸이 45명(28.8%), 전문대졸이 29명(18.6%), 대학원 이상이 9명(5.8%)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 평정은 대상 유아와 6개월 이상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평정자로 참여 하였다.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의 평정 도구는 연구 대상 유아의 아버지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1) 유아의 사회적 능력 측정 도구

유아의 사회적 능력 측정을 위하여 LaFreniere와 Dumas(1995)의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SCBE)을 안라리(2005)가 번안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에서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평정할 수 있도록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식 6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6점까지 평정한다. SCBE는 친사회적 행동, 내적행동문제, 외적행동문제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친사회적 행동은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은 유아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융통적이며 친사회적 행동패턴을 보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성숙을 보이며 또래와 교사의 선호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내적행동문제와 외적행동문제는 각각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역 채점을 하게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잘 적응하고 있고 내적인 또는 외적인 문제행동이 적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도구의 신뢰도는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Cronbach's $\alpha = .95$, 내적행동문제의 경우 Cronbach's $\alpha = .91$, 외적행동문제의 경우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능력 전체의 경우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측정 도구

아버지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와 Fox(1995)가 제작한 가정에서의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한영민(2005)이 번역하고 유아교육전문가와 이중 언어 사용자에 의해 수정된 도구를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표현 경향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형태의 도구이다. 질문지는 전체 40문항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23문항과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가 5점 척도로 되어있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표현을 안 한다’의 경우에서부터 5점 ‘항상 그렇다’, ‘항상 표현 한다’의 경우이다. 이 척도는 긍정적, 부정적 2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정서 영역은 다른 사람이 일을 잘

했을 때 칭찬해 준다’와 같이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즉,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으로 총 점수의 범위는 긍정적 영역은 0점~115점, 부정적 영역은 0점~85점 까지이다. 각 영역별 신뢰도는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Cronbach's $\alpha = .91$, 부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언어 통제 유형 검사

아버지의 언어 통제 유형 검사 도구는 Bernstein(1971)과 Gumpertz(1973) 등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혜숙(1997)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검사 도구를 예비조사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항목은 유치원 시기의 유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언어통제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0점에서 항상 사용하는 경우 4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다. 부모의 언어 통제 유형 검사에 제시된 통제 유형은 <표 1>과 같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명령지향형의 경우 Cronbach's $\alpha = .95$, 지위지향형의 경우 Cronbach's $\alpha = .93$, 인성지향형의 경우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 척도와 유아의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 도구의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곳에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교사용 질문지와 아버지용 질문지를 보냈다. 연구 대상은 총 10명의 유아와 대상 유아의 아버지로 남아 5명, 여아 5명이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4세 6명, 만 5세 4명이었다. 예비조사 실시 결과, 유치원의 요구로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 중 직업과 수입액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아버지용 질문지의 이해를 돋기 위해 예시 문항을 첨

<표 1> 부모의 언어 통제 유형 검사에 제시된 통제 유형

통제유형	통제 유형의 언어적 준거	언어의 실례
명령적 통제	행동 통제 시 유아에게 부여되는 역할 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부모의 명령, 언어적 벌, 신체적 벌, 자극의 제거, 간접적 벌 등이 포함된다.	- 자꾸 그러면 때려 줄거야 - 다시 또 그런 욕하면 혼낼거야 - 신발이 그게 뭐니, 똑바로 해놓고 와
지위적 통제	행동 통제 시 유아에게 부과되는 역할 재량권이 형식적 지위에 제한을 받는 통제로써 보편적 규칙, 지위적 규칙, 가족적 규칙 등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욕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 너 왜 손님 앞에서 철없이 그러니, 의젓해야지 - 인사를 잘해야 착한 사람인지
인성적 통제	행동 통제 시 유아의 역할 재량권이 동기, 의도, 상황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의 특징, 의도, 동기의 관점을 고려한 아동 지향적, 부모 지향적, 타인 지향적 언어 통제 등이 포함된다.	- 손이 더러우면 네 손에 있는 더러운 병균도 같이 먹게 될텐데 - 네가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서운해 하시겠다 - 싫더라도 아빠가 바빠서 그러니 도와주면 좋겠구나

가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질문지의 각 문항의 기타로 표시되어있는 자유기술형 부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였다. 질문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평정자로서 교사는 유아 1인당 약 7분, 아버지는 2가지의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15분 내외로 소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 4곳에 재원중인 만 4세, 만 5세 원아 285명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1월 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질문지를 배부 및 회수함으로써 실시되었다. 배포된 질문지는 285부이고, 회수된 질문지는 175부(회수율 61.4%)였으나, 이 중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6부(54.7%)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유아의 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본 연구대상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점수 평균은 6점 만점에 4.34($SD=.56$)로 친사회적 행동은 4.20, 내적행동문제는 4.24, 외적행동문제는 4.59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사회적 능력 변인 중 유아의 외적 행동 문제에서만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아 ($M=4.42$)가 여아($M=4.72$)에 비하여 역산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외적 행동에 문제가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t=-2.32$, $p<.05$). 전체적인 사회적 능력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남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수준은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62점($SD=.50$),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2.34점($SD=.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표 2>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구 分		N	M(SD)	t
친사회적 행동	남아	70	4.12 (.66)	-1.53
	여아	86	4.27 (.58)	
내적 행동 문제	남아	70	4.22 (.64)	-.45
	여아	86	4.26 (.53)	
외적 행동 문제	남아	70	4.42 (.86)	-2.32*
	여아	86	4.72 (.71)	
사회적 능력 총점	남아	70	4.25 (.61)	-1.82
	여아	86	4.42 (.50)	

* $p<.05$

<표 3>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구 分	친사회적 행동	내적행동 문제	외적행동 문제	사회적 능력 총점
긍정적 정서표현	.04	.03	.01	.03
부정적 정서표현	-.25**	-.19*	-.18*	-.24**

* $p<.05$ ** $p<.01$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표현성($r=-.24$, $p<.05$)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이 줄어들며, 내적·외적 행동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친사회적 행동($r=-.25$, $p<.05$)과 내적 행동 문제($r=-.19$, $p<.05$), 외적 행동 문제($r=-.18$, $p<.05$)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부정적 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이 줄어들며, 내적·외적 행동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표현성($r=-.27$, $p<.05$)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남아의 사회적 능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남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부정

(표 4)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남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구 분	친사회적 행동	내적행동 문제	외적행동 문제	사회적 능력 총점
긍정적 정서표현	.12	.07	.18	.15
부정적 정서표현	-.32**	-.24*	-.17	-.27*

* $p<.05$ ** $p<.01$ **(표 5)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구 분	친사회적 행동	내적행동 문제	외적행동 문제	사회적 능력 총점
명령지향형	-.16*	-.19*	-.16*	-.20*
지위지향형	-.05	-.11	-.14	-.12
인성지향형	-.03	-.09	-.08	-.08

* $p<.05$ **(표 6)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남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구 분	친사회적 행동	내적행동 문제	외적행동 문제	사회적 능력 총점
명령지향형	-.27*	-.39***	-.30*	-.37***
지위지향형	-.13	-.21	-.14	-.19
인성지향형	-.11	-.17	-.13	-.16

* $p<.05$ ** $p<.01$ *** $p<.001$

적 정서표현성은 친사회적 행동($r=-.32, p<.01$)과 내적 행동 문제($r=-.24, p<.05$)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부정적 정서표현성을 많이 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줄어들며, 내적 행동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정서표현성은 여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남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점수는 지위지향형이 2.16점($SD=.6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성지향형 ($M=1.77, SD=.72$), 명령지향형($M=1.24, SD=.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중 지위지향형과 인성지향형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령지향형

의 경우 사회적 능력($r=-.20, p<.05$)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가 명령지향형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는 명령지향형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r=-.16, p<.05$), 내적 행동 문제($r=-.19, p<.05$), 외적 행동 문제($r=-.16, p<.05$)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가 명령지향형 언어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낮아지며, 내적·외적 행동에 대한 문제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중 지위지향형과 인성지향형은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령지향형의 경우 사회적 능력($r=-.37,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가 명령지향형일수록 남아의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는 명령지향형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r=-.27, p<.001$), 내적 행동 문제($r=-.39, p<.001$), 외적 행동 문제($r=-.30, p<.05$)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명령지향형 언어통제를 할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낮아지며, 내적·외적 행동에 대한 문제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중 지위지향형과 지위지향형, 인성지향형 모두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4, 5세 남녀 유아 156명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능력의 하위 변인 중 유아의 외적 행동 문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외적 행동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성차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들(김영지, 1994; 임정란, 2002; 장가경, 1989)의 결과와는 반대로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 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 결과들(김순정, 2000; 김정희, 문혁준, 2004; Cohn, 1990; La Freniere et al., 2002)과 같이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가 있음을 지지한다. 성

차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유아가 그들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남아의 공격적인 행동은 여아보다 덜 제한 받고 여아는 남아보다 더 순응적일 것을 기대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라고 설명한다. 반면에 사회적 유능성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정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여성이며 그들이 갖는 성 고정관념에 의한 측정 방법의 오류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이러한 측정 방법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서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사회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유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성에 관한 고정관념이 남녀 유아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의 표현을 요구함으로써 유아들의 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음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남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의 부정적인 정서환경은 정서에 대한 지식 및 형제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Denham, Zoller, Couchoud, 1994; Dunn, Brown, & Beardsall, 1991)는 연구를 지지하며, 우수경과 정영숙(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강한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오영희, 우수경, 김화자(200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강한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도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음으로서 우수경과 정영숙(2003)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결과와 아버지-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아버지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는 경험을 한 자녀는 사회적 능력이 높다(Lindsey et al., 1995)라는 내용은 본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척도가 자기보고 형식인 것을 감안할 때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신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대한 믿음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부정적 정서표현성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항목인 친사회적 행동은 줄어들고, 내적 행동 문제가 많

아짐을 알 수 있었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우수경과 정영숙(2003)의 연구가 있는데, 연구결과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남아의 전체 사회적 능력과 하위요인 중 주도성 및 협조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강한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남아의 전체 사회적 능력과 그리고 하위요인 중에서는 주도성 및 협조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남아의 사회적 능력이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 표현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는 것은 서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하위요인 중 각각 '외적 행동문제'와 '사교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정서표현이 외부적으로 들어나는 남아의 행동문제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중 지위지향형과 인성지향형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령지향형의 경우 사회적 능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가 명령지향형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혜숙(1997)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인성적 통제를 사용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위적 통제, 그리고 명령적 통제를 사용할 때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서 각 통제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중 지위지향형과 인성지향형은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령지향형의 경우 사회적 능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아버지가 명령지향형 언어통제를 할수록,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낮아지며, 내적, 외적 행동에 대한 문제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여아의 경우에는 분석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중 지위지향형과 명령지향형, 인성지향형 모두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경희(1993)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가 남아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게 되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도혜숙(1997)의 연구에서도 남아의 사회적 능력은 아버지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가 명령적 통제를 사용할 때 사회적 능력 발달에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아버지는 남아에게 남성성을 강조하고 남아 역시 성장하면서 점차 아버지를 선호하고 모방하게 되며 아버지의 관

심을 얻기 위해 애쓰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명령적 통제를 많이 받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서 갈등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능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남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반면 도혜숙(1997)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여아의 사회적 능력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대상 아버지들이 아들 보다 딸과 좀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정서표현성과 언어통제유형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과 명령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자제하고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할 때 명령지향형 언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유아에게 그 상황을 이해시킴으로서 좀 더 자녀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사회적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또한 남아의 경우에는 여아들 보다 아버지의 명령지향적 언어통제 유형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좀 더 사회적 능력과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남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 유아와 함께 6개월 이상 생활해온 유아의 담임교사 12명을 평정자로 선정하였다. 12명의 교사들이 맡고 있는 유아들이 모두 다르기에 평정자간 신뢰도는 산출하지 못했지만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정자내 신뢰도는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을 모두 평가하는 데에는 한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 관찰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 도구는 아버지의 자기보고식 형태로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문지 회수율이 높지 않아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녀가 인식하는 언어통제유형과 아버지가 지각하는 자신의 언어통제유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기보고식 척도와 동시에 유아 면접을 통하여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에 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님(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김문신(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정(2000). 어머니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문혁준(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0), 23-38.
- 노명희(1995). 아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혜숙(1997).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천(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원(200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라리(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영희, 우수경, 김화자(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유아교육학회지*, 10(1), 149-165.
- 우수경(2005).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193-211.
- 우수경, 정영숙(200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생활과학 연구논총*, 7(1), 99-118.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 관련 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영란(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자녀통제 및 유아의 자기통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양순(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및 또래 유능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란(2002). 유아의 놀이유형별 아버지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가경(198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윤희(2004). 어머니의 정서 표현에 관련된 변인과 유아의 정서능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2002).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2(3), 205-216.
- 한영민(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nstein, B. 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ernstein, B. A. (1977). *Class, codes and control(vol. 3): Towards a theory of educational transmissions*.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Bigner, J. J. (1979). *Parent-child relations :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s of emotion*. New York : Guilford Press.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1), 152-162.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1), 238-256.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45.
- Eisenberg, N., & McNally, S. (1993) Socialization and mothers' and adolescents'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 171-191.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ottman, J., Gonz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Gumpertz, J. J. (1973).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r,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 Relation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bserv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0-892.
- Hartup, W. W. (1991). *Hav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keeping friends; Relationship as education context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5 854)
- Isley, S. L., O'Neil, R., & Parke, R. D. (1996). The relations of parental affect and control behavior to children's classroom acceptance: A concurrent and predictive analysi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 7-23.
- Jewswuan, R., Luster, T., & Kostelin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3-51.
- La Freniere, P. J., & Dumas, J. E. (1995).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Preschool Edition*.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La Freniere, P. J., Masatak, N., Butovskaya, M., Chen, Q., Dessen, M. A., Atwanger, K., Schreiner, S., Montirocco, R., & Frigerio, A. (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3(2), 201-219.
- Lindsey, E. W., Smith, T., & Benedict, K. (1995). Father-child pla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M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Parker, J.,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othbaum, F., & Weisz, J. R. (1994). Parental caregiving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in nonclinical sampl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55-74.

(2007년 1월 30일 접수, 2007년 3월 22일 채택)